

‘전남 지자체 소멸위기’는 젊은여성들 기피 때문

22곳중 17곳 젊은여성 10% ↓ 고령인구 20% ↑ ‘위험지역’
한국고용정보원 ... 산단·관광시설 투자에도 인구 증가 실패

전남도내 22개 시·군이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을 위해 대규모 재정 부담을 안고 산업단지 및 리조트 조성, 농어촌개발사업 등을 벌이고 있으나 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9세의 여성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고령인구는 20%를 넘는 ‘소멸위험지역’이 22곳 가운데 광양, 목포, 여수, 순천, 무안을 제외한 17곳에 달하는 등 인구 감소 추이가 매년 더 심해지고 있어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고용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

가지 분석’ 보고서에서 2014년 현재 소멸위험도가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고흥군 인구는 지난 2014년 1월 7만569명에서 2015년 1월 6만9532명으로 7만명 선이 붕괴됐다. 이후 2016년 6만8516명, 2017년 6만7622명으로 4년간 2947명의 주민이 사라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고흥은 2014년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이 6.7%에 불과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35.3%로 나타난 바 있다. 고흥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자금 166억원, 민간자금 500억원 등 666억원을 투입한 우

주랜드 조성사업은 물론 472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건립중이다.

소멸위험도 7위 신안군은 대규모 예산을 들여 연륙·연도교가 잇따라 설치되면서 교통편의가 향상되고 있지만, 인구는 지난 2003년 5만769명에서 2004년 4만7646명으로 5만명선이 무너진 뒤 2014년 4만4378명으로 감소 추세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신안 역시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이 6.0%(고령인구 비중 31.0%)에 불과한 곳이다.

12위를 기록한 함평군도 마찬가지. 2013년 12월 3만6171명이었던 인구는 2014년 3만5724명, 2015년 3만4876명, 2016년 3만4397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 기간 함평군은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업비 825억원(국비 70억원·도비 20억원·군비 185억원·민자 550

억원)을 들여 동함평산단을, 예산 71억원을 들여 한옥 전원 마을을 각각 조성했다.

하지만 인구통계에서만 보면 이 같은 노력은 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함평 역시 2014년 20~39세 여성의 인구비중은 7.5%,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31.7%를 보였다.

보고서는 “지자체장이 단순히 고용률 70%를 달성한다고 선언하고 공공근로를 늘리기보다 젊은 여성인구를 매년 1% 늘리기 위해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수 있다”며 “정부 역시 지역정책을 집행할 때 소멸위험도에 따라서 지역을 유형화해 지원의 규모와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합성고무 생산 이탈리아 롯데베르살리스
여수산단 투자 1200억 늘린다

한국과 이탈리아 합작 외투기업인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가 여수국가산단 내 합성고무 생산시설 투자액을 당초 계획보다 12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추가 일자리 창출, 처리 물량 증가에 의한 납품업체 매출 증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015년 각각 5400억원, 1500억원 등 69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가 1차 투자협약분인 5400억원에서 6600억원으로, 1200억원을 증액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 코트라,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투자 실현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는 이번

증액투자로 여수국가산단에 81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합성고무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여수국가산단에는 또 한국바스프도 930억원을 투자해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전자케미칼 공장을 건설 중이다. 생산품은 자동차 타이어, 접착제, 의료용기기 등의 원료로 쓰인다.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와 한국바스프의 투자로 매일 2000여명의 근로자가 여수 공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곳 두 사업장에서만 건설인력 18만3000여명이 투입돼 인건비로 283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 사업이 완공되면 230여명의 고급 일자리가 생길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두 사업장에 연인원 26만1000여 명이 건설 현장에 투입, 인건비 376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민주당 광주 북갑·광산을
사고지구당위원장 공모 마감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과 광산을 지역위원장 공모가 마감됐다.

이번 공모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야권 심장부인 광주에서 원내 1당의 조직을 튼튼히 정비하겠다는 취지에서 실시됐다. 북구갑은 강기정 전 최고위원의 단독응모가 예상됐으나 정준호 변호사가 나서면서 2파전이 됐다.

강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공천 배제된 뒤 독일에 체류하다 설 연휴 직전 귀국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경선 후보 캠프 종합상황실장으로 합류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에게 패한 뒤 광주로 가족 모두 이사를 온 뒤 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등 지역구 활동을 해왔다.



트럼프-아베, 北 미사일 발사 규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총리가 이날 기자회견하는 모습. /연합뉴스

전남도 올 591억 투입 노인일자리 늘린다

4년 연속 정부평가 대상
17일까지 참여자 모집

전남도가 올해 노인 일자리사업에 591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4년간 노인 일자리사업 부문 정부평가 대상 수상으로 사업비가 지난해에 비해 71억원 늘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노인 일자리 참여 자격은 공익활동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며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이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노인회 등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참여 자격 조화 등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노인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주 2~3회, 하루 3시간, 월 총 30시간의 일을 하게 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정부평가에서 4년 연속 노인일자리 대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2016년보다 74억원이 증액된 591억원 원을 투입, 2만7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있게 됐다.

특히 올해는 공익형 일자리 사업 활동비가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됐다. 노인 일자리 유

형은 노노케어, 지역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4개다.

전남도는 단순 환경개선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시니어 새 일터 지원센터를 통해 60~64세 중·장년층 은퇴자 재취업을 위한 취업 알선 및 교육, 재능 기부와 자원봉사 연계 서비스 지원 등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왔다. 이 가운데 2016년부터 시작한 전국 최초 ‘병원서비스 실버코디네이터’ 파견 사업은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도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시장형 사업을 주도하는 시니어클럽을 8개 소로 확대하고, 1시·군 1경로당에 특산품 가공 공동작업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北 무수단급 개량 미사일 발사 ... ICBM 아닌 듯

북한은 12일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500km 비행에 그쳐 예상했던 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기를 지난달 제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정일 생일(2월 16일) 등을 계기로 발사할 가능성을 주시해왔다.

합참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 추가 설명을 통해 북한이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무수단급(사거리 3000~3500km 이상) 개량형으로 추정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최고고도 550여km로 치솟아 500km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행 속도가 마하 10(음속의 10배)으로 노동미사일(마하 9.5)보다 빨라 무수단 미사일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그러나 500km를 날았다는 점에서

ICBM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ICBM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행 거리가 최소 무수단의 최대사거리로 보이는 3500km 안팎을 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ICBM을 보유한 강대국 기준으로 보면 사거리 5500km 이상이어야 ICBM으로 분류한다.

군과 정보 당국은 이번에도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 거리가 500km에 이른 것으로 볼 때 무수단을 개량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식별된 신형 ICBM 추정 발사체 2기가 새 ICBM 엔진(고체 추정)을 탑재한 무수단 미사일의 개량형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에도 고각(미사일을 대기권 밖까지 나가도록 높이 발사하는 방식)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고각 방식으로 쏜 것은 엔진성능을 지속해서 개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전남 소재 예술작품 전시 ‘남도사이버갤러리’ 오늘 개장

전남지역을 소재로 한 유명 예술작품을 온라인으로 전시하는 ‘남도사이버갤러리’가 13일 개장한다. 누리집 도메인은 ‘art.jeonnam.go.kr’로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전남도청 서버를 활용해 개설한 누리집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반응형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에 중점을 뒀 구축됐다. 작품의 판매, 임대, 중계가 가능한 ‘남도예술은행’과 지난해 서울 인사동에 설치한 ‘G&J 광주·전남 갤러리’와 공유하는 통합형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까지 등록된 작품은 월출산 구경봉 ‘큰 바위 얼굴’ 사진을 비롯해 전남도 사진공모전에 당선된 작품 618점과 남도예술은행 소장품으로 판매가 가능한 회화작품 268점이다. 전남도는 예술단체 추천과 공모를 통해 작품을 추가해 콘텐츠를 보강할 방침이다.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G&J 광주·전남 갤러리’의 전시 상황과 대관 일정을 사이버에서 확인하고 감상할 수 있으며, 대관 신청도 할 수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부동산 실무전문가 박관식대표의 특별세미나

2017년 아파트, 상가, 토지시장의 대전망!

흔들스러운 경제상황과 예측하기 어려운 부동산시장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등
수도권 및 지방 아파트시장의 전망과 분석
개발은 넘쳐나는데.. 가장 매력적인 투자지역은 어디일까?
토지시장에 대박이 있다!
미래가치가 높은 신개발지를 찾아라!
자녀, 손주 대기업 쉽게 취업하는 비법공개!

강의내용

- ✓ 수도권 및 지방 아파트시장의 전망
- ✓ 전국 토지시장의 전망과 분석
- ✓ 수도권 및 지방의 최고 노른자위를 찾아라!
- ✓ 개발지에서 성공투자하는 법!
- ✓ 자녀, 손주 대기업 쉽게 취업하는 비법공개!

행복한 부동산 강의와 상담이 함께하는
[박관식 전문가의 방송 안내]

▶ WOW 한국경제TV ‘부동산핫라인’ 생방송 출연중!!
(매주 일요일 저녁7시(본방) / 밤12시(재방))

무료 특강 일시 및 장소

- | | |
|--------|--|
| 광양 | • 일시 : 2월 15일(수) / 오후 2시~5시
• 장소 :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3층 다목적실 / 전남 광양시 중동 1658 (광양 백운초등학교 건너편) |
| 서울 여의도 | • 일시 : 2월 20일(월) / 오후 2시~5시
• 장소 : 한국경제TV 금융아카데미 와우파 (여의도역 4번출구 3분거리 직진 삼성모바일서비스센터 건물 6층) |

* 당일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접수 바랍니다

(KLD) 한국토지개발원

부동산세미나 문의 : 02)595-4236, 4237

